

# 북한교화를 위한 제언

이성전 교화분과 전문위원

## I. 서론에 대신하여

우리 교단은 비교적 일찍부터 북한교화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그 진행은 매우 더딘감이 없지않다. 이미 원기 64년 4월에 대산 상사님의 하명을 받들어 '북한교화 위원회'가 발족되고 그후 7년 뒤인 71년 5월에야 북한교화위원회 규정이 원의회에서 승인되었다.<sup>1)</sup> 74년에 제 6공화국의 북방정책인 7.4 선언이 있게 되었고자 우리교단에서도 '북방교화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해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 후에도 이러한 관심은 종법사님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그러나 간헐적인 연구 발표와 논의에 그친감이 머물었다.<sup>2)</sup> 그러는 가운데에도 청년회의 남북 한삶 운동은 펍 돋보이는 활동이었다.

최근에 대한 적십자사의 북한 식량지원에 동참한다거나 박청수 교무님의 북한교화를 위한 활동, 종교인협의회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새로운 모습이다. 반면에 청년회의 남북 한삶운동이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의 시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단에서는 북한교화의 기본정신으로 좌산 종법사님의 統一大道에 대한 법문인 “대해원, 대사면, 대화해, 대수용, 대협력, 대합의”이 발표되

---

1 원의회 218회 회의록, 원기 71년 5월 9일 북한교화를 위한 제언.

2 북한교화와 관련된 연구 논문 또는 논설이나 그외의 발표문들은 원불교 교화연구소에서 “통일, 북한, 북방교화자료집”의 제하에 2권으로 묶여져 발간되었다. 이책에 그간의 관련글들이 총망라 되어있어 이를 참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원불교의 북한교화 이념, 정책에 관한 분석, 교화방안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있다.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된 기본정신으로는 대세계주의와 민족주의의 공존, 평화통일, 민족자주적 통일, 이소성대적 통일, 제3체제에 대한 합의를 통한 통일<sup>3)</sup>로 정리될 수 있다.

북한교화의 문제는 이제 논의와 연구에 머물 수 없다.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함은 물론 적극적인 실행이 병행되지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6월현재 북한주민접촉 현황은 10,694건 22,677명이 신청하여 9,617건 20,694명이 승인을 받았고 2,978건 8,021명의 경우에 이미 접촉이 성사되었다. 이 가운데 종교인이 274건 1,271명 신청에 217건 1,111명이 승인되어 70건 606명이 이미 북한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97년에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통계수치의 거의 절반이 한해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97년 한해동안에 32건 100명이 신청하여 24건 73명이 승인을 받았으며 18건 43명이 직접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이루었다.

원불교는 많은 외부의 인사들로부터 건설하고 차분하게 성장해가는 종교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뼈아픈 반성을 촉구하는 충고도 없지 않다. 그 가운데 한국 역사 속에서 역할한 바가 약하며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켰다는 지적은 참으로 깊이 새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통일은 우리민족이 풀어가야 할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제 우리 교단도 민족의 역사에 더욱 성실하게 다가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북한교화의 문제는 훨씬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해가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발표는 지금까지의 교단적 논의의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교단이 적어도 이렇게는 실행해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

3통일의 이념에 대해서는 송천은 교무 김팔곤교도 김성택, 양현수, 김 현 성도종, 신면국 교무등과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II. 북한 교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

### 1. 학술적 교류이다.

북한 학자와 원불교 교무 사이의 교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원 한정석 김성택 박원현 김도종 박윤철교무가 89년 8월 일본 오사카 제 3차 조선학 국제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 사회과학연구소소장 박승덕교수와 한수길교수에게 원불교 소개와 원불교 전서등 자료를 제공하였다. 91년에는 김성택 김도종교무가 이학술회에서 박교수를 다시 만나 원불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전달하였다. 김성택교무는 이회의에서 박교수가 원불교 사상에 대해 연구해 본 결과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보아도 크게 문제 될 사항이 없으며 통일 이념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사회과학원안에 원불교 연구생(대학원생)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93년 8월에 중국 북경 제 1차 국제 고려학회에 김정용, 김성택, 김도종교무가 참석했고 참가자중 남북한 대표급 학자들과 임원진이 동석한 만찬 자리에서 박교수가 원불교 사상과 불교사상을 접하게 된 후 불교철학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과학원 안에 불교 연구생 3명을 선발하여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이며 그중 2명은 원효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1명은 원불교사상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고 한다.<sup>4)</sup>

학술 분야에서의 교류는 대학이 있는 우리교단이 갖는 큰 이점이며 근본적인 사상의 교류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닐 수 없다.<sup>5)</sup>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교류교류와 대학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깊은 사상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된될 것이다. 더우기 이미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과 연구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내용은 김성택교무다 1993년 11월 25일 평통자문위 종교분과에서 발표한 것이다.된 내용이 다.

5) 이러한 제안은 1989년 11월호 원광에 당시 총무부장으로 있던 성도종 교무에 의해 이미 제안된바이다.

## 2. 남한내의 타종교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다.

이미 91년 네팔 카투만두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ACRP) 4차 총회에 전팔근, 김대선교무가 참석하여 북한의 조선 종교인협의회회장인 정신혁과 한인철(천도교인)에게 원불교전서를 전달하였다. 정신혁회장은 최덕신 전교령으로부터 원불교가 건실한 종교단체라는 소개를 들은 적이 있고 북한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불교측에서 북한과의 교류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진각종의 한 정사에게 종교간 남북 접촉에 관한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는 반색하면서 그렇지않아도 원불교측의 누군가와 연락하고 싶어하던 차라고 했다. 지난 8월에 북한의 조선불교 연맹 대표를 만났던 자리에서 조불연측이 원불교에 대해 알고 있고 원불교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해왔다고 한다. 이 내용을 교화부에 전달이 하였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이 없어서 북한과의 교류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터라고 했다. 그후 그는 10월 31일 종교 대표자들과 함께 북한에 가기로 하였고 원불교에서 원한다면 조불연으로 부터 초청장을 받아다주겠다고 연락해왔다.

북한교화는 통일의 날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공을 쌓아가느냐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북한의 종교인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 3. 개성교당을 근거로하는 교화거점 마련이다.

옛 개성교당을 중심으로 북한지역 교도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들과 교류를 시도할 수 있다. 개성의 교도로서 서울과 부산 익산등에서 교도 또는 교무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희망에 따라 북한에 남겨둔 가족찾기와 북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교도 찾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sup>6)</sup> 1989년 11월호 원광에서 당시 총무부장이었던 성도종 교무는 개성교

---

<sup>6)</sup>이러한 견해 역시 양현수 성도종 정천경교무에 의해 발의된 것이다.

당 교도로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 1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한 바 있다. 이분과의 접촉이 그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개성교당의 부지를 다시 확보하여 복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현행법과 여러가지의 선결해야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요즈음 북한은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고 개성교당이 있던 곳에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고 원불교의 이름을 심어가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훈춘 은혜임목유한공사를 근거로하는 북한교화의 적극적 추진이다.**

이곳에는 양세정 이시은 교무가 교화를 시작하여 주재하고 있다. 금년(1998) 8월에 박청수교무님은 훈춘에 은혜공사 허가장을 받았고 중국정부로부터 부지 5천평을 40-70년간 무상임대 받았다. 이곳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을 생산하여 싼값으로 보급하게 될 것이고 은혜공사의 직원들은 중국 거류민의 자격으로 북한을 왕래할 수 있다고 한다.<sup>7)</sup>

우리교단은 북한 교화를 위해 각교구를 이북 5도와 연관지어 지정하고 교화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 북한교화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교화를 위해 일해가는 데에는 든든한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한 곳에 교단적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교두보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해외교화가 인연에 따라 흩어져 있으므로서 야기되는 단점을 검토하여 참고 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미 훈춘에는 교당이 마련되어 교화가 시작이 되었고 북한교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만큼 이에 교단적인 힘을 실어 교화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원불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확고한 활동의 근거지와 이를 기반으로 교화 역량을 발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지

---

71998년 10월호 원광에 '북한교화의 새벽을 연다'에 게재된 내용에 의함

역은 북한의 라진항과는 93km, 청진항과는 17km로 이웃해 있고 북한 인민과 조선족의 화물과 여행객이 왕래하는 사타자, 권하 동상구가 정상 개통되면 다리하나만 건너면 바로 직교류가 되는 곳이라고 한다.

## 5. 북한교화를 위한 인재양성이다.

이는 북한교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과제이다. 북한 교화에 뜻을 둔 교역자를 선발하여 양성하자는 의견은 이미 북한교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이 더 있을 수 없다.

근래에 북으로부터의 귀순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교단에서도 교당과 귀순자의 1교당 1인 자매결연을 통해 생활의 지원과 교화를 시도하였다. 해마다 귀순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며 현재 900명정도의 귀순자가 남한에 있고 최근의 귀순자만 해도 3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은 이방인이 정착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회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들어나는 데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귀순자에 대한 남한인의 따뜻한 배려와 한동포로 끌어안는 노력은 통일 후를 위한 귀한 준비가 될 수 있고 간접적인 교화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 6. 북한교화를 위한 내적 준비이다.

좌산 종법사님께서는 통일작업 요강을 발표하셨다. 이내용은 통일 전 북한 작업, 통일 전 남한 작업, 통일 후 작업의 세분야로 이루어졌고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남과 북이 서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가운데 통일이전 남한 작업에는 “북한 대하는 성숙도 높이기”와 “어떤 부당한 상황에도 말려들지않게 하기”가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동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북한을 대하는 따뜻함을 준

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법문과 연구의 결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전교도에게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따뜻한 마음 갖기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년 학생 청년 일반을 위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을 맞을 정신적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다.

박청수교무를 취재하고 돌아온 월간 원광 기자는 가이드나 조선족 사람들의 우리민족에 대한 높은 자긍심에 놀라고 있다. 10월 초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원광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했다. 평양의 최고 호텔에 안내 되었을때 값이 싼 숙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묘향산을 구경시켜주겠다는 제안을 사양하였더니 수많은 남한 사람들이 평양에 와서 이 호텔에 묶어 갔으나 사양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떠한 용무로 왔던지 오자마자 금강산과 묘향산 관광 안내를 부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의외의 사람을 만나 반갑다고 하였다고 한다. 호텔을 떠날 때에는 숙박비 일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며 사양하는 그를 정중하게 만류하였다고 한다. 이 사례를 통해 북한 민간인을 접촉하는 남한 사람들의 자세와 북한 민간인이 남한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면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 북한교화를 연구하고 주관할 상설 부서와 전담자의 필요이다.**

원불교에 북한교화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창구를 단일화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상설 부서와 전담자이다 이는 여러 사람에 의해 제안되고 설명된 바이다.

### III. 결 론

좌산종법사님께서 제시한 통일접근방식에는 당국과 민간이 가능한 곳부터 서로 접촉하고 경제와 정치 문화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것부터 서로 교류하며 외국과 협력하여 서로 교류해야 한다고 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만나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만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만나고 식량난을 겪고 있는 동포의 어려움을 온정으로 감싸야 한다. 이러한 따뜻한 만남 속에 교화가 시작될 것이다.

북한교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심도 있게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제는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이 병행해야할 시점에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라는 구절을 수 차례나 접해야 했다. 실제로 너무 미약한 노력을 호되게 질타하는 글도 있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우리의 역량을 기우리는 것은 한국의 역사에 원불교의 역할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아픈 충고에 답하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끌어안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 교화는 이러한 점에서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청년회의 한살운동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더욱 힘차게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교단적 의지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교화는 이제 새벽 3시쯤 됩니다.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일어나 준비해야 합니다.”고 박청수 교무님은 말한다. 그후 몇달 사이에 어느새 한시간쯤 더 날이 세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해지기조차 하다.